

A vibrant garden scene featuring a variety of colorful flowers. In the foreground, a pink butterfly sculpture with red spots on its wings is mounted on a black stake.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numerous other flowers in shades of yellow, blue, pink, and purple, creating a lush and colorful environment. The overall atmosphere is bright and cheerful.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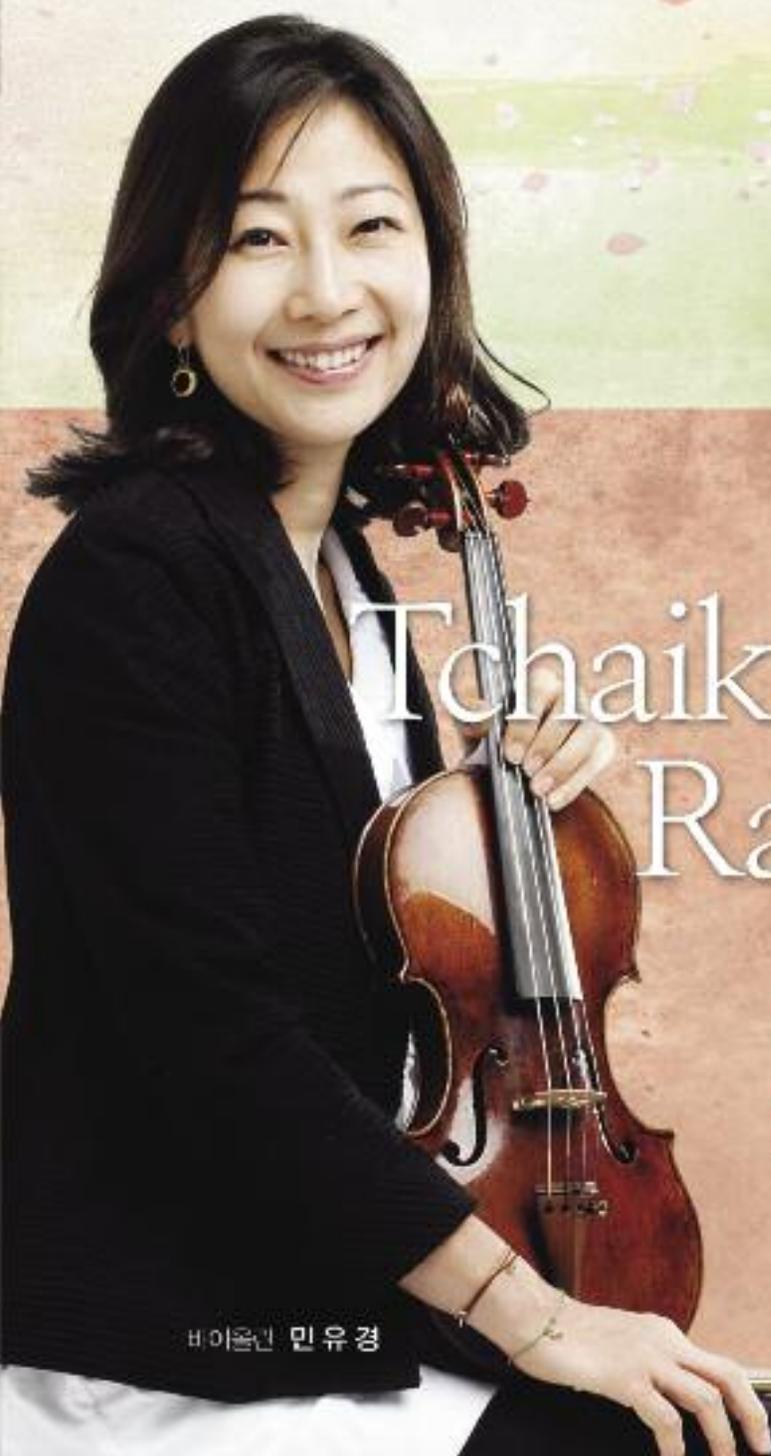
2012 <http://www.ucac.or.kr>

PROGRAM

차이콥스키 / 슬라브 행진곡 작품 31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라흐마니노프 / 교향적 무곡 작품 45



지휘 김홍재



바이올린 민유경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2012 정기연주시리즈 名作Ⅲ

Tchaikovsky & Rachmani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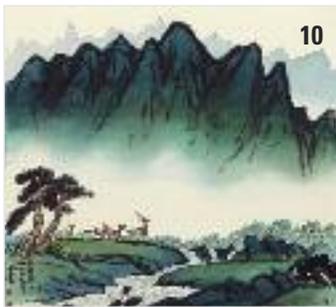
차이콥스키 & 라흐마니노프

2012. 4. 6 (Fri)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공연문의 <http://www.ucac.or.kr> 275-9623~8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55회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Ⅲ '차이콥스키 & 라흐마니노프'
교향악단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음악회 '오케스트라 이야기'
합창단 도레미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하는 '베르디 오페라의 밤'
합창단 울산합창축제 2012 '어울림'
- 09 ■ 기획공연**
2012 모닝콘서트 Season.5 귀가 즐거운 아카펠라그룹 '원달러'
- 10 ■ 기획전시**
한국미술 100년, 거장 35인 특별전
즐거운 야외 조각전
- 16 ■ 예술을 말하다**
세계의 문화 도시 <필라델피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30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단원 조한길
- 26 ■ UCAC는 지금**
*Arts Friend*가 만난 사람들
NOTICE
톡! 톡! 톡!
- 31 ■ 4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4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4월호 | 통권 제153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과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지휘_ 김홍재

2012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Ⅲ

차이콥스키 & 라흐마니노프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4. 6(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바이올린 민유경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55회 정기연주회는 러시아의 두 거장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편이다. 서유럽의 음악과는 다른 ‘러시아’라는 민족적 음악성향을 간직한 채 우리의 가슴을 애절하게 만드는 풍부한 서정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두 작곡가이다. 차이콥스키(Tchaikovsky, 1840~1893)는 고전적 형식미를 유지하면서도 듣는 이를 애절하게 만드는 서정성으로 고전과 낭만의 미묘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도 그만의 음악세계를 형성하였다. 서구 음악 형식에 러시아 민족 음악의 서정성을 조화시켜 독특한 애수와 정열을 아름다운 선율로 살린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다. 당시 서유럽의 작곡가들이 각기 자기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데 비해, 그의 음악은 고전음악에서부터 낭만 음악을 포함하는 토탈리즘을 표방하였다. 즉,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v, 1873 ~1943)는 19세기 후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양식과 더불어 피아노 연주의 거장으로서의 자신만의 독특한 필치를 통해 오늘날에도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PROGRAM

■ 차이콥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슬라브 행진곡 작품 31번 | Slavonic March, Op.31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번 | Concerto for Violin in D Major, Op.35

- 제1악장 Allegro Moderato-Moderato assai
- 제2악장 Canzonetta Andante
- 제3악장 Finale Allegro Vivacissimo

■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v, 1873~1943)

교향적 무곡, 작품 45 | Symphonic Dance Op.45

- 제1악장 Non Allegro
- 제2악장 Andante con moto(Tempo di valse)
- 제3악장 Lento assai, Allegro vivace

그가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하던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의 음악적 경향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자신만의 예술적인 이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정통적 러시아의 낭만주의를 보여 주는 서정성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의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서정성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는 4월 6일 파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의 시작을 러시아의 두 거장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맑고 청아한 음색, 화려한 기교에 더해진 기품 있는 서정성 매력적인 21세기의 주역 바이올리니스트 민유경

민유경은 특유의 맑고 청아한 음색, 화려한 기교에 더해진 기품 있는 서정성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는 국내 톱 솔리스트 중 하나이다.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기악과에 수석 입학했고, 1학년 재학 중 스승인 김남운 교수를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입학 한 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여 화제를 모았던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이던 1995년, 영국의 Yehudi Menuhin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면서 다시 한 번 음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수 국내와 음악학도의 첫 국제무대 정식 데뷔로 당시 음악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도미하여 The Juilliard School에서 석사를, 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영예로운 휘태커기금의 수혜자로 오케스트라부문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바이올린_민유경

국내에서는 한국일보 콩쿠르 1위, 중앙일보 콩쿠르 1위, KBS 신인음악 콩쿠르 대상 등 주요 대회를 두루 석권하였고, 해외에서는 Corpus Cristi Young Artist 콩쿠르 1위, World Symphony 콩쿠르 1위, Manhattan Sibelius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하였다. Washington 국제 콩쿠르에서는 현악부문 1위 및 청중상 등 3개의 특별상을 휩쓸었다.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천시향, 수원시향, 성남시향,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대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강남 심포니,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케스트라, Tutti Ensemble 뿐만 아니라 영국 St. John Square 오케스트라, Manhattan Chamber Sinfonia, 우크라이나 Kharkov Philharmonic, Sofia Soloists Chamber Orchestra 등과 함께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글.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음악회

오케스트라 이야기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4. 19(목) 11: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종규(부지휘자)
입장료 전석 초대
(울산지역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 본 공연은 울산지역 초등학교 단체신청으로
관람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한 공연입니다.

PROGRAM

- 오케스트라 이야기(해설 김종규) | 음악과 오케스트라
- 벤자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중 1, 2부
- 베토벤 7중주, 작품20
- 스타워즈 전곡(Suite for Orchestra)
 - Main Title • Princess Leia's Theme • The Imperial March
 - Yoda's Theme • Throne Room & End Title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한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오케스트라 이야기'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이번 공연은 울산지역 소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음악회이다. 이번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음악회는 2011. 12월 교육청과 체결한 교육기부 협약의 한 일환으로 울산의 중심이 될 어린 꿈나무들을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직접 초대하여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최고의 공연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의 예절과 감상방법, 공연장 주변 전시장과 공원 등 시설체험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오케스트라 이야기'와 '스타워즈'

이번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김종규 부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과 여러가진 악기 이야기 해설로 시작하며, 울산시향 단원들이 들려주는 베토벤 7중주,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영상과 함께하는 영화 '스타워즈' 테마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미래의 울산을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에게 좋은 음악과 문화적 소양을 심어주는 체험의 기회가 될 이번 공연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음악회,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중인 가족음악회 등 울산시립교향악단의 다양한 변신에 많은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 글.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04.19





04.12

도레미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하는 베르디 오페라의 밤

울산시립합창단
2012. 4. 12(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한성용(부지휘자)
사회 및 해설 전소영(효정중학교 음악교사)
입장료 전석 5천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베르디의 오페라를 소재로 해설이 곁들여 지는 울산시립합창단의 기획공연으로 영상을 활용한 도레미 선생님의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와 연주곡의 설명이 더해진다. 또한 작곡 과정과 공연 당시의 숨은 이야기, 작곡자 소개, 시대 상황, 음악 감상방법 등을 도레미 선생님의 분한 현역 학교 음악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어 학창시절 음악수업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음악교실 시리즈는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계획되어 있는 기획공연으로 오는 4월 12일에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베르디'의 오페라 Rigoletto(리골레토)와 La Traviata(라 트라비아타) 두 편중에서 각 오페라를 대표하는 아리아로 선곡하여 연주하고, 하반기에는 '푸치니'의 오페라를 소개할 예정이다.
/ 글.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PROGRAM

■ Rigoletto(리골레토)

Questa O Quella(이것도 저것도) | Ten.배수원(만토바)
Caro None(그리운 이름이여) | Sop.김정상(질다)
Pari siamo(우리 한 종류의 인간) | Bar.최대우(리골레토)
Ella mi fu rapita(넘치는 눈물) | Ter.정필운(만토바)
Cortigiani(내 딸을 돌려다오) | Bar.최판수(리골레토)
Tutte le feste(올어라 내 딸아) | Sop.김수미 Bar.최판수(질다, 리골레토)
La donna e mobile(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 Ter.박승희(만토바)
Bella figlia dell'amore(아름다운 사랑의 딸)
| Sop.김은정 Alt.강연희 Ten.김병도 Bar.최대우(질다, 마달레나, 만토바, 리골레토)

■ La Traviata(라 트라비아타)

Brendisi(축배의 노래)
| Sop.박인경 Ten.박현민(비올레타, 알프레도)와 합창비올레타, 알프레도
Un di felice eterea(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 | Sop.배선화 Ter.김정권(비올레타, 알프레도)
Ah! fors'è lui(아! 그이었던가) | Sop.김성아(비올레타)
Lungi da lei per me non v'ha diletto(그녀를 떠나서는 내 맘에 행복 없네) | Ter.김정률(알프레도)
Di provenza il mar, il suol(프로벤자의 하늘과 땅) | Bar.배영철(제르몽)
Parigio cara(사랑아 파리를 떠나서) | Sop.김은혜 Ter.김성철(비올레타, 알프레도)

■ Aida(아이다)

Gloria all'Egitto(개선행진곡) | 합창



구 천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울산시립합창단



권정성 지휘자



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



강윤철 지휘자



다문화여성합창단



정홍근 지휘자



남성합창단울사내



이승욱 지휘자



해송합창단



박재형 지휘자



현대자동차여성합창단

울산합창축제

2012 어울림

어울림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4. 17(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출연단체 울산시립합창단(지휘자/구 천)
남성합창단울사내(지휘자/정홍근)
해송합창단(지휘자/이승욱)
현대자동차여성합창단(지휘/박재형)
다문화여성합창단(지휘/강윤철)
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정성)

입장료 전석 5천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울산에서 다양한 개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남성, 어린이 합창단체들과 함께 하는 특별공연으로 합창단별로 가지고 있는 끼와 색깔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로 준비된다. 마지막 무대에 마련되는 연합합창은 각각의 개성을 자제하며 공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큰 하모니를 일구어 내는 합창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합창축제 2012 『어울림』은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되는 연주회로 관객들에게는 여러 형태의 다채로운 합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체들에게는 또 한 번 무대연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울산 음악문화의 발전과 저변을 넓히고자 기획되었다.

/ 글.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PROGRAM

- 울산시립합창단 | 여성합창
Let it be / Yesterday once more
- 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
떡노래(장정아 편곡)
아름다운 세상 다함께 나눠요(이현철 곡)
- 다문화여성합창단
나는 아직도 바다를(김성춘 시/이종우 곡)
넬라판타지아(문현주 편곡)
- 남성합창단울사내
대장간의 합창(오페라 Il Trovatore, G. Verdi)
사랑합니다(정일근 시, 이지상 곡)
- 해송합창단
귀천(전상병 시/이현철 곡)
별이 되어 남은 사랑(한은숙 시/한성훈 곡)
- 현대자동차여성합창단
가고파(이은상 시/박지훈 곡)
노래같이 좋은 것은 없네(김동현 역사/Natalie Sleeth 곡)
- 울산시립합창단 | 남성합창
Ich Liebe Dich / Good night
- 연합합창
시냇물을 건너다(함태균 곡) / 서생배꽃(이수인 곡)
목련화(김동진 곡)

04.17

기 획 공 연

2012. 4. 26일(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시간 10분(휴식없음)
티켓신청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귀가 즐거운 아카펠라 그룹!

원달러

유쾌한 다섯 남자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

오는 4월 26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3월에 이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두 번째 모닝콘서트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Be happy A cappella <원달러>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평범함을 거부한다. 유학파, 시립합창단 출신의 조금은 안타까운 비주얼이지만 노래실력만큼은 훌륭한 성악가들이 관객과의 호흡과 음악의 다양성에 목말라 하다 아카펠라 그룹 '원달러'를 결성하여 관객들이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었다. 그들 스스로를 성악계의 단비같은 존재라고 칭한다. 노래부터 남 다르다. 일반적인 성악가들이 주력하는 평범한 클래식 장르를 넘어 가요, 팝, 아카펠라, 뮤지컬, 재즈, 영화음악 등 관객들이 한자리에서 모든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을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대단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팝페라 <You raise me up>을 시작으로 영화 라이온킹에 나왔던 <The lion sleeps tonight>, 프리티 우먼의 <Pretty woman>, 팝송 <Java jive>, <tonight>, 우리민요 <군밤타령>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관객들과 호흡하며 천상의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원달러는 메인보컬 명노경, 테너 이 재훈, 테너 이한샘, 바리톤 김충만, 베이스 심태호 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연당일 원달러 외에 또 다른 한 명의 숨겨진 출연자가 등장해 공연의 퀄리티를 높일 것이라고 얘기한다. / 글.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담당 주무관)

울산문화예술회관 4월 모닝콘서트
Be happy acappella <원달러>



기 획 전 시

4. 20(금)~5. 14(월), 25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입장료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
(회원 및 단체 30%할인)

한국미술 100년, 거장 35인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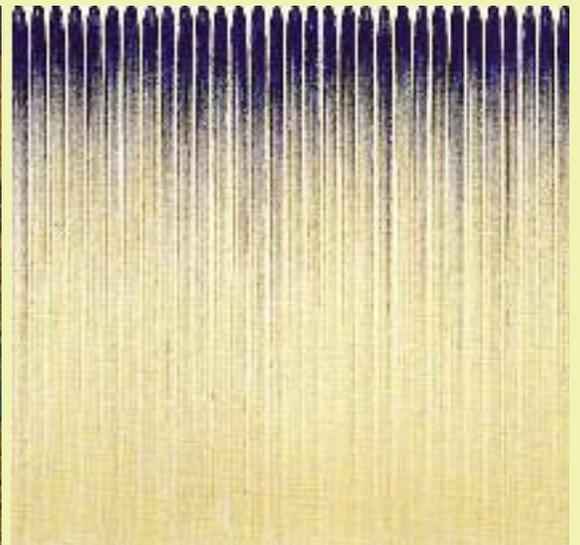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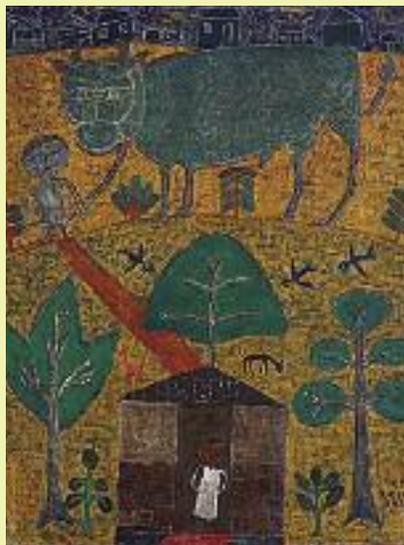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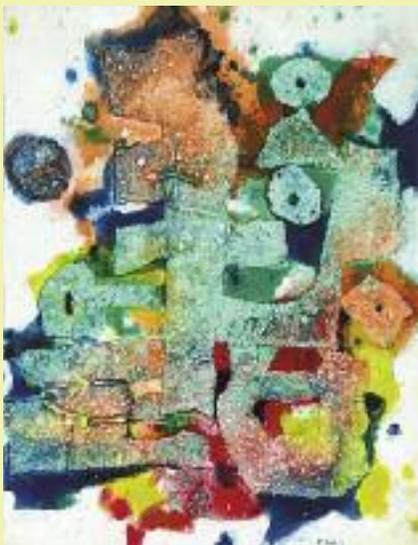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35인의 작품 70점 초청전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하며, 한국미술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거장 35인의 작품을 초청하여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25일간 제1전시장에서 「한국 미술 100년, 거장 35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근·현대 미술 10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거장 35인의 작품 70점이 선보인다. 한국미술의 역사는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 말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한다. 근대시기에는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전통회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온 한국화 작가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서구의 양화가 일본을 통해 전해 들어와 정착해 나가던 시기였다. 한국전쟁이후 시기의 작가들은 유화 뿐 아니라 전통 재료까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형방법을 구현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정립,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하여 현재까지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근대기에서 현대기까지 활동하였던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 100년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크게 세 개의 테마로 구성하였다.



첫번째, “한국 회화의 근대화화 현대 한국화”는 190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시기 전통회화로 시작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조형방식을 도입하여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성취한 대표적인 한국화가 10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은호의 산수화, 전통회화의 현대화 접점에서 활동한 변관식, 이상범, 노수현, 한국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05	06
01		
02	03	04
07	08	09

- ❶ 이종섭 물고기와 동자 10.1x12.5cm
- ❷ 남 관 추상 52x44cm
- ❸ 장욱진 마을 30x22cm
- ❹ 이우환 선에서 182x227cm
- ❺ 운보 김기창 청록산수 62.5x64.7cm
- ❻ 소장 변관식 임천청화 32.5x34cm
- ❼ 김환기 산월 30x24cm
- ❽ 유영국 나무 51x45cm
- ❾ 박수근 마을 30x22cm

전시구성

- PART1 | 한국 회화의 근대화와 현대 한국화
김기창, 김은호, 노수현, 박래현, 박생광
변관식, 이상범, 이흥노, 장우성, 천경자
- PART2 | 근·현대 서양미술의 정착과 확장
권옥연, 김환기, 김홍수, 남 관, 도상봉
류경채, 문 신, 박고석, 박수근, 박영선
오지호, 유영국, 윤중식, 이대원, 이마동
이성자, 이종우, 이종섭, 장욱진, 한 목
- PART3 | 추상미술로의 전이와 세계화
김창열,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정창섭

단계 도약한 이흥노, 박생광, 김기창, 박래현 등의 개성있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근·현대 서양미술의 정착과 확장”을 주제로 두 번째 테마에서는 근대 서양화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한국 화단을 중심으로 우리 미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서양화가 20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초기 아카데미즘 작가인 도상봉, 이마동, 이종우, 한국미술사의 획은 그은 김환기, 권옥연, 박수근, 이종섭, 장욱진, 한국 추상미술의 태동을 이끈 김홍수, 남관, 유영국 등의 다채로운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세번째 “추상미술로의 전이와 세계화”는 196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저변확대와 확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대작가 5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예술성과 독창성을 겸비하여 현재까지 국내 미술시장 뿐 아니라 해외 미술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창열, 박서보, 이우환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미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10년경부터 시작된 한국미술의 태동과 발전과정, 현재의 놀라운 성과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본 전시는 지난 2년간 한국 근·현대 미술을 서양화 중심으로 소개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 회화를 계승 발전 시켜온 거장의 작품을 보강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였다.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한국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애호가 뿐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과 일반인 모두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작품 한 점과 만나는 뜻 깊은 경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글. 박영진(울산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담당 주무관)



음악과 조각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야외공간을 이용한 전시가 열린다. 담장을 허물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 예술의 숲에서는 서예작품에 등불과 깃발을 결합한 "야외 서예전", 바람개비와 대형 조명트리를 이용한 설치미술 "희망, 2010 바람개비전" 등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62일간 <즐거운 야외 조각전>을 준비하였다.



설총식
The Walker(걷는 이)

즐거움 야외 조각전



강태호
CLIP(클립)



김동현
히든카드



전식덕
돼지 두 마리



박성철
스타일



김영환
variation(변이)



김유석
신인류



박찬용
역센 암개



서동완
Cable Tiger(백호)



손원이
피 터지게 싸우는 놈들



손현욱
CRAB for children(어린이를 위한 조각)

이번 전시에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통해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각가들의 야외조각 작품 30점이 전시된다. 현대인의 고독과 생활상을 은유적으로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 일상적인 사물을 크게 확대하거나, 단순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익살스러운 만화 주인공의 모습,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유명인의 얼굴을 확대 혹은 생략한 작품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야외 활동을 하기에 편안한 계절에 추진되는 전시인 만큼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작품감상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 편안한 관람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도심 속의 문화 공간에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한다. / 글. 박영진(울산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담당 주무관)



최혜광 안녕하세요



박기준
b1203



오원영
Mimicry-Black Child(검은 아이)



유재욱
스무고개 알아 맞하기



이인행
도심-원룸임대



최용훈
이외수



정혜경
Let it be가 흐르는 축음기



조윤환
욕심쟁이



차치만
공생



송명수
Square Mickey Mouse(마키 마우스)



최일호
Chaplin, instint 2012(본능적인 채플린)



최정유
뛰는 톰 나는 제리



홍준경
20세기 소년단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세계의 문화 도시 <필라델피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30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단원 조한길

Part.2 UCAC는 지금

*Arts Friend*가 만난 사람들

NOTICE

톡! 톡! 톡!

Part.3 4월의 공연 · 전시

공연 · 전시 가이드

4월의 공연 · 전시

세계의 문화 도시

필라델피아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유진 오먼디, 리카르도 무티, 볼프강 자발리슈 등 거장들의 숨결이 깃든 미국 동부의 명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2001년 12월 31일 송년 음악회는 어느 해보다 숙연한 무대였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은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날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아카데미 오브 뮤직'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새로 동지를 튼 김멜센터 내 베리존 홀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100년 가까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신축 전용 음악당이다. 필라델피아 사교계의 오랜 전통인 무도회에 매년 한 차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면, 1857년에 개관한 '아카데미 오브 뮤직'(2,921석)에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

주식공모로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오페라 극장 건축비 마련

필라델피아는 1790~99년 미국의 수도였다. 일찍부터 오페라 공연이 활발했다. 하지만 마땅한 오페라 극장이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다. 1830년대부터 오페라 극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다섯 차례나 있었다. 1839년에는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 런던의 킹스 시어터에 필적할만한 5,000석짜리 극장을 지으려고 했다. 5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다. 요즘 화폐 가치로 1,900만달러(약 180억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모두 자금 부족으로 무산됐다.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 유일한 성공 케이스였다. 1851년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뮤직'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듬해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뮤직 오페라극장 설립 허가서 및 취지문'라는 소책자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공모했다. 이 책자에는 건축과 운영 개요, 투자에 따르는 예상 수익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1854년 10월 건축 설계공모에는 15명이 참가해 필라델피아에서 건축사무실을 운영 중이던 나폴레옹 르 브룬, 구스타부스 런지가낸 설계안이 선정됐다. 1855년 6월 18일 착공식에서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첫 삽을 떴다. 당시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교통 소음에서 벗어난 한적한 장소를 택한 것이다. 당시 필라델피아의 도심은 5번가와 체스트넛 스트리트였다. 아카데미 오브 뮤직은 개관 당시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오페라극장으로 손꼽혔다. 현존하는 미국 오페라 극장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한다.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음악원 이름 같지만 단 한번도 음악학교로 사용해 본 일이 없다.(뉴욕의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도 마찬가지다) 개관 당시의 이름은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뮤직'. 극장 정면에는 AMERICAN ACADEMY OF MUSIC이라는 글씨가 아로새겨진 갈색 사암이 극장 정면의 붉은 벽돌 사이에 박혀 있다.

1957년부터 15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리노베이션 공사에 돌입했다. 원래의 설계안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식 무대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목표였다. 개관 10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와 무도회에서 대대적인 모금 행사를 벌였다.

‘두 개의 보석을 담은 거대한 유리상자’ 탄생

2001년 12월 15일 김멜센터의 공식 개관행사를 하루 앞둔 전야제 공연에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미국 작곡가 애런 제이 커니스에게 위촉한 '색채의 바퀴'(세계 초연)에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이즈하크 펄먼,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액스가 협연하는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을 연주했다. 필라델피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김멜센터의 자랑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주무대로 사용될 베리존홀(2,543석)이다. 마치 대형 첼로를 연상시키는 완만한 곡선으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연극, 무용, 실내악, 팝 공연,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홀 페럴만 시어터(650석)가 들어섰다. 필라델피아 중심가의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다. 건축가 라파엘 비놀리의 말처럼 '두 개의 보석을 담은 거대한 유리상자'가 탄생했다. 19세기의 겨울 정원, 런던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떠올리게 한다.

개관에 따른 예산은 2억6,600만달러(약 3,000억원). 그 중 건축비는 1억7,500만달러다. 나머지는 설계비와 운영비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이중 8,5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고, 김멜센터도 1,500만달러를 내놓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이사 시드니 김멜의 이름에서 따왔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1908년부터 새 공연장을 지으려고 했다. 무엇보다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 원래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을 모델로 지어진 것이어서 잔향시간(1.3초) 등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부하고 두터운 현악기의 음향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 사운드'도 아카데미의 열악한 무대 조건에 적응해온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공연 일정의 배정을 놓고 아카데미의 소유주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다른 입주 단체가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또 필라델피아가 미국 인구 5위의 대도시임에도 공연 횟수나 객석수, 입장권 매출액 면에서 15위를 기록해 뉴욕 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 필적할 만한 문화 인프라가 절대 부족했다. 김멜 센터의 개관으로 연주 여건은 훨씬 나아졌지만 관객들로서는 다소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R석의 경우 94달러(약 12만원)에서 110달러(약 14만원)로 인상했다. 하지만 가장 싼 좌석은 17달러(약 2,200원)에서 10달러(약 1,300원)으로 오히려 낮추기로 했다.

‘예술의 거리’의 꽃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떠나 보낸 ‘아카데미 오브 뮤직’은 미국 최고(最古) 오페라하우스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필라델피아 오페라단(1975~)과 펜실베이니아 발레단(1963~)의 주무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김멜센터와 아카데미 오브 뮤직은 Regional Performing Arts Center, Inc(RPAC)가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 오브 뮤직의 건물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소유이지만 대지는 김멜센터와 공동 소유다.

아카데미 오브 뮤직과 김멜센터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는 필라델피아 시청 앞 브로드 스트리트는 일찌감치 ‘예술의 거리’로 명명됐다.

필라델피아 시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브로드 스트리트를 걷다보면 보도블록 위로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진 동판이 눈에 띈다. 소프라노 마리안 앤더슨, 색소폰 주자 존 콜트레인, 팝그룹 보이시 투멘 등 이곳 출신 음악가들은 물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지낸 유진 오먼디·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의 이름도 보인다.

1,400만달러(약 170억원)를 들여 가로경관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브로드 스트리트의 레스토랑은 92년 이후 10년 만에 세 배로 늘어났다. 리즈칼튼, 하얏트, 더블 트리 등 유명 호텔도 이곳에 몰려있다. 타워 레코드 등 자정까지 영업하는 상점도 많다. 교외로 빠져나갔던 전문직·고학력·고수입의 백인



행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도심이 ‘예술의 거리’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들이 속속 도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밤거리도 극장을 찾는 시민·관객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사우스 브로드 스트리트 쪽 12-17가 사이에만 30개의 주차장이 있고, 전철, 트롤리, 버스 등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펜텔은 99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 당선됐다. ‘예술의 거리’의 꽃은 2001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전용홀로 개관한 김멜센터다.

브로드 스트리트의 공연장 총객석수는 2만2700석. 리지웨이 도서관은 필라델피아 예술고로, 소방서는 판화 전문 갤러리 ‘브랜디 윈 워크숍’으로, 사우스 필라델피아 국립은행 건물은 230석짜리 소극장 ‘필라델피아 아트뱅크’로 개조됐다. 펜실베이니아 발레단은 상가 빌딩을 개조해 전용 연습실을 마련했다. 2006년엔 160가구의 아파트와 350석짜리 공연장을 결합한 ‘심포니 센터’가 들어선다. 시청 북쪽에 영화 ‘로키 5’를 촬영했던 ‘레전더리 블루 호라이즌’, 1만200석짜리 규모의 실내 경기장 ‘리어쿠러스 센터’, 템플대 음대의 350석짜리 실내악홀인 ‘로크홀’, 흑인 전문극단 ‘뉴 프리덤 시어터’, 남쪽에 뮤지컬 극장 ‘프린스 뮤직 시어터’(350석), 뮤지컬·발레극장 ‘메리엄 시어터’(1790석)가 자리잡았다. 음악 공연장 20개, 미술관 7개, 연극 무용 공연장 20여개, 상주 문화예술 단체만도 40여개에 이른다.

뉴욕 링컨센터,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의 경우처럼 쇠락해 가는 도심을 문화시설로 되살리는 것이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하지만 ‘예술의 거리’는 길이 5.6km의 여러 블록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다. 관광 수요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이다.

예술의 거리에서는 매년 축제를 벌인다. 건축가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마케팅, 교통환경평가, 소비자 연구 등 다각적인 연구도 하고 있다. 밤이 되면 행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도심이 ‘예술의 거리’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30

음악이 주는 감동이란 게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되고 곧장 이어지는 낭만적인 피아노 선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현의 강도가 높아지고 드디어 카덴차 부분에서 뿜어내는 열정은 가슴 벅차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슴 벅참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듣는 사람이 이 정도니 직접 연주하는 사람은 어떨까.



이 작품은 기교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연주하기 너무 힘들어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린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곡이 됐지만 라흐마니노프가 활동했던 20세기 초 만해도 이 곡은 피아니스트에게 난공불락의 고지였다. 말이 협주곡이지 사실 이 곡은 피아니스트에게 오케스트라를 압도하는 엄청난 테크닉과 카리스마를 요구하는 곡이라, 피아니스트라면 언젠가는 정복해야할 거대한 산맥처럼 여겨졌던 작품이었다. 영화 '샤인'에서 호주 출신의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실화를 통해 이 곡의 연주와 해석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콧 힉스 감독의 1996년 영화'샤인'. 주인공이 피아니스트인 만큼 그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한 클래식들이 정교하게 흐른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이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오디션 결승무대에서 바로 이 곡을 연주했다. 어릴 때부터 열망했던 곡이었던 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무대에서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객석은 열광했지만 곡이 가져다주는 에너지, 그 감동이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데이비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어디까지가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초인적, 거장적, 선천적 재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라흐마니노프(1873~1943)에게는 모두 4곡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다. 그 중 3번은 1907년에 작곡을 시작해 1909년에 완성, 그리고 이듬해 라흐마니노프의 연주로 초연이 됐는데 초연 당시 '세상에서 라흐마니노프만이 연주할 수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기교를 요하는 작품이라 '악마적인 기교'를 지닌 천재가 아니고서는 절대 연주할 수 없으리라는 저주 아닌 저주가 걸렸다는 말까지 있었다. 라흐마니노프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라흐마니노프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 30여년 동안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하는 피아니스트였고 이 세월 동안 그가 보여준 놀라운 피아노 음악의 경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6피트,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183cm 가까운 장신이었기 때문에 큰 키와 긴팔을 이용해 피아노 건반을 완전히 압도하는 연주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했고, 큰 손에 더한 열정적인 힘과 높은 기교의 소유자였던 터라 그의 연주를 실제로 접한 사람들은 그 강렬한 여운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한 초기 반응은 그저 그랬다. 연주하기가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에서도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곡이어서 대중적으로 어필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곡의 최고의 명연으로 꼽히는 것은 우선, 1930년 최초로 이 작품을 녹음한 이후 총 여섯 종의 레코딩을 남겼던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연주다.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도 호로비츠 연주를 듣고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넋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백건우가 녹음한 음반도 품격과 개성을 두루 갖춘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피아노의 여제'로 불리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연주도 명연의 반열에 올라있다.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곧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외교는 르네상스 시기 유럽 각국이 다른 나라에 사절을 상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외교관들은 주재하는 국가의 정세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

하고, 사교 활동을 통해 우호 관계를 증진할 뿐 아니라 전쟁이나 외교적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를 대표하여 상대국과 협상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

바로크 회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도 당시 외교관의 모습과 사회적 정황을 훌륭하게 포착해낸 작품이다. 화가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공방 구석에서

습작을 하면서 기술을 연마해온 홀바인은 젊은 시절 휴머니즘의 중심 도시인 바젤에서 화가이자 판화가로 명성을 얻었다. <대사들>은 영국 국교회의 가톨릭교회 탈퇴와 관련하여 프랑스 왕이 위탁한 외교 업무를 수행 중인 두 프랑스 인을 그린 그림이다. 홀바인은 1533년 프랑스의 영국 대사 장 드 댕트빌(Jean de Dinteville)에게 작품을 주문 받았다. 이는 그의 친구이자 라보르(Lavaur)의 주교였던 조르주 드 셀브(Georges de Selve)의 방문을 기념하고, 당시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그림에 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의 그림에 담는 초상화는 아주 드물고, 또 가운데 선반을 중심으로 화면 양쪽에 나란히 세워두는 구도도 매우 독특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운데 배치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두 사람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취한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화면 왼쪽에 위치한 댕트빌은 모피와 비단, 벨벳으로 된 화려한 옷을 입고 목에는 훈장을 건 당당한 대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위치한 드 셀브의 의상도 호화롭지만, 수수한 색채와 절제된 자세로 성직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은데, 이는 당시의 긴장된 정치적·외교적 상황을 반영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화려한 터키 용단으로 덮인 선반이 있고, 여기에는 책이나 악기, 천문학과 관련된 도구들이 놓여 있다. 위쪽 선반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후의 최신 과학도구인 천구나 해시계, 나침반처럼 천체를 이해하고 시간을 재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 아래쪽 선반에는 지구의와 산수책, 컴퍼스, 류트와 플루트, 찬송가책 등이 놓여 있고, 지구본에 그려진 대륙이나 찬송가책의 음표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초상화의 주인공들이 부유하고, 교양과 학식을 겸비한 지식인이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몇몇 세부는 당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은유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가령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악기인 류트의 줄이 끊어져 있는 것은 로마가톨릭과 영국 국교회 사이의 종교적 불화를 나타낸다. 활짝 펼쳐져 있는 루터교 찬송가책과 나웃셈 페이지가 보이는 산수책, 분할 컴퍼스 등도 이러한 분열을 암시한다.

댕트빌과 드 셀브 같은 온건한 휴머니스트들은 화면 가운데 하단에 왜곡된 형태로 그려진 해골을 통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은 이후 17세기의 바니타스 정물화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렇게 초상화에 숨겨 그려져 우리 인간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이 해골은 정면에서 보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지만, 그림 오른쪽에 바짝 붙어 보면 온전한 형태의 해골로 보인다. 대사들은 그들이 지닌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 이들 가운데 놓인 사물들이 드러내는 천문학과 기하학, 음악 같은 인간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분쟁으로 가고 있는 종교 갈등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헛된 욕망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다.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대사들(Ambassadors)>, 1533. 목판에 유채, 207x209.5cm, 런던 내셔널갤러리.

“

<대사들>은 프랑스 왕이 위탁한 외교 업무를 수행 중인 두 프랑스 인을 그린 그림

”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단원

조한길



이번 시간에는 시민들에게 항상 좋은 연주를 선사하는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린 수석단원인 조한길(38)씨를 만났다.

조한길은 선화예술중학교에서 2년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고등학교를 거쳐 인디애나음악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3년 3월에 바이올린 수석단원으로 몸담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꽤 오랜 시간 수석연주자로서 활동을 해온 그는 시립 교향악단 연주를 자주 관람해온 분이라면 낮익은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보통 오케스트라는 파트가 구분된다.

객석에서 보면 지휘자를 중심으로 왼쪽편이 바이올린군 가운데가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위치하고 뒤쪽으로 관악기군, 타악기군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모든 악기군이 중요하지만 현악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인데, 특히, 바이올린군은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군으로 나뉘어 더욱 풍성하고 섬세한 선율을 표현하기도 한다. 보통 오케스트라 단원은 수석, 차석, 일반단원으로 나뉘는데, 각 악기군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게 수석단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조한길 수석은 바이올린 중에서도 제1바이올린, 객석을 기준으로 지휘자의 바로 왼쪽, 객석과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브람스 교향곡 4번 공연을 마치고 처음 만난 그는 소문난 연습벌레다. 오랜 세월 단체의 일원으로 연주를 하다보면 같은 곡을 여러번 연주하기도 해서 조금 느슨해질 법도 한데, 그에게 그런 느슨함이란 볼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매회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실력파다. 같은 곡이라도 지휘자의 해석과 상황에 맞게 템포와 음정과 박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새로운 곡이라 생각하고 연습에 임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석이란 위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악장과 지휘자를 서포트하고, 단원들을 리드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만 한다.’ 공연을 감상하면서 각각의 악기군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바로 지휘자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힐끔거리며 쳐다본다는 표현이 우스울 수 있지만, 보는 그대로 적는다면, 힐끔거리며 쳐다보는게 맞다. 특히나 각 악기군의 수석, 차석 단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설새 없이 연주하고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의 지휘봉 또는 눈을 맞춘다. 각 악장이 끝날 때나 피날

레에 80여 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동시에 연주를 마치는 장면과 때론 속삭이듯이 때론 힘차게 강악을 조절하는건 지휘자의 지휘봉 끝에서 시작하여 각 악기를 리드하는 수석, 차석단원을 통해 단원과 자연스레 소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한길은 언제나 준비된 연주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원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연주가 되기 위해선 나부터 자신감이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한길은 연주가 없는 날에도 연습을 하고, 시간이 좀 된다면 사진생활을 즐긴다. 연주 실력만큼 사진도 수준급인 그는 사진생활이 연주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항상 똑같은 일만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기 쉬운데, 사진 활동이 그 부분을 해소시켜준다고 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라도 그날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사진이 다르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곡을 대할 때에도 같은 곡을 같은 악기로 연주하지만 사진을 찍는 기분으로 악보를 대한다고 말하는 조한길의 눈에서 프로 정신이 느껴진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날의 연주를 즐긴다는 심정으로 무대로 걸어나가면 제일 먼저 관객의 표정부터 살핀다는 조한길은 관객이 많고 적응에 따라 연주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찬 객석을 보고 있노라면 단원, 지휘자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연주가 빛이 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웃음 짓는 모습에 순수함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의 목표를 들어보았다.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연주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소규모 실내악연주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모습의 조한길을 공연장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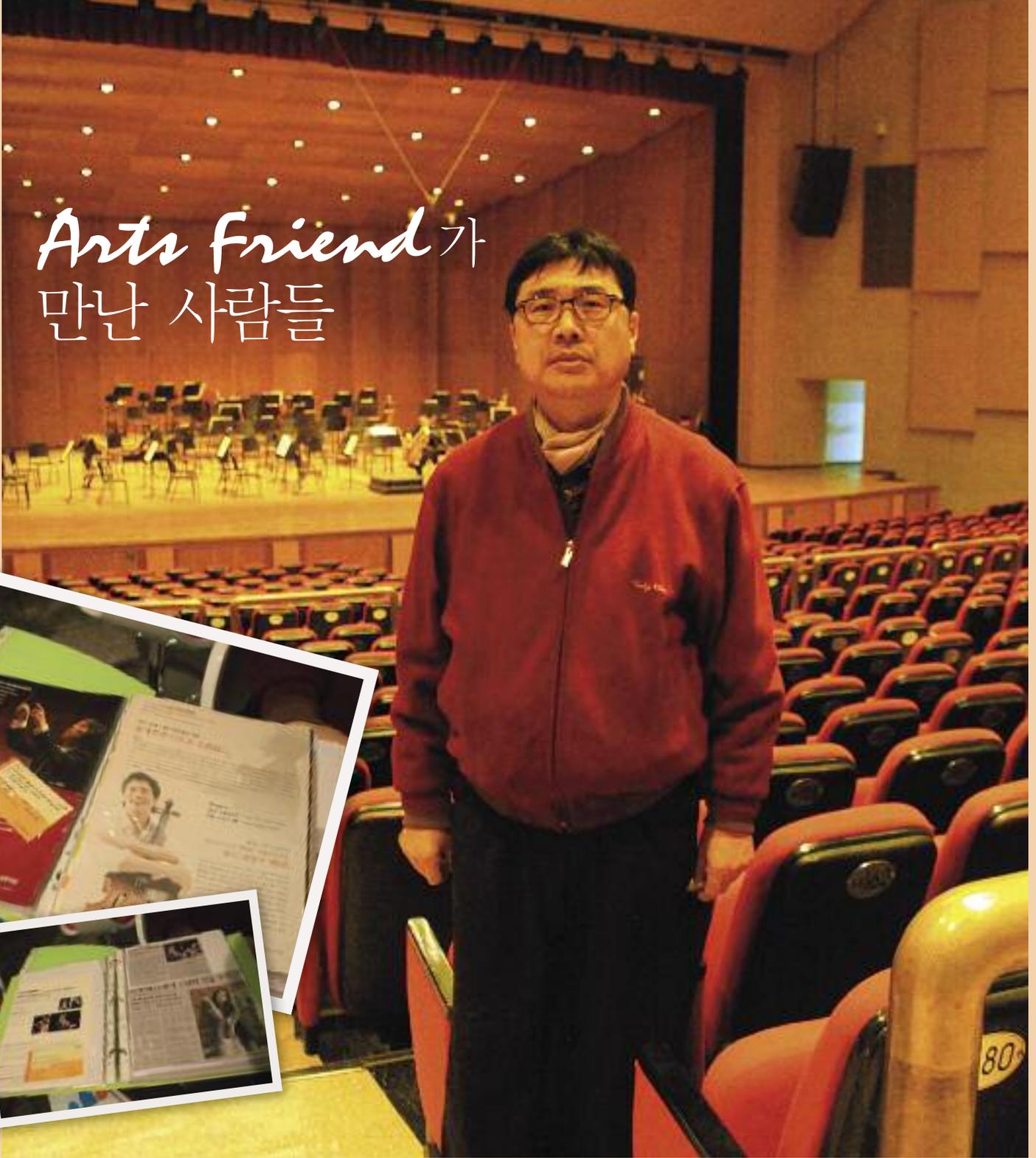
/ 글. 권혁민(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츠프렌드 기자)



조한길의 바이올린
이태리 '조세페 카스타니노'
1946년



Arts Friend가 만난 사람들



4월호를 준비하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 한 동료가 송상호씨를 추천하고 나섰다. 우연히 공연장 로비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회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울산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련해서는 팜플릿을 스크랩해서 다니는 등 남다른 애정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한 번 귀담아 듣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9일 교향악단의 '브람스 4번 교향곡' 연주를 앞두고 짧은 만남을 제안했다. 그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직원에게 '뭐 나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라며 수줍은 인사를 건네며, '그래도 이발도 하고 왔다.'며 흥조를 띄며 웃는다.



Interview



본 코너는 매달 우수회원/단체회원을 선별하여 공연장에서 짧은 만남을 통해 나눠 본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곳입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연관람에 있어 매우 열정적이라는 소개를 받았다. 한 달에 몇 번이나 공연장을 찾는지?

교향악단 연주회, 댄스, 모닝콘서트에 전시까지 관람을 하니까 한 달에 적어도 예닐곱번은 예술회관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Q 공연관련 보도자료와 팸플릿 등을 스크랩해서 들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늘도 가지고 왔는지?

집에 더 있지만, 비교적 최근 자료모음만 가지고 왔다. 내가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내가 좋아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아주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팸플릿과 함께 꽂혀 있는 티켓을 꺼내 보이며) 이 뒷면에 이렇게 그날의 공연장 분위기나 곡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상 등 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짧은 메모를 해두었다. 시간 지나 들춰봐도 그날의 기억들이 손끝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Q 공연을 즐기는 팁(tip)?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낯설고 생소한 것들에는 다소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하고자 했던 일을 일찍 외면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나와 동행했던 지인들도 그랬다. 그래서 공연관람 계획을 세웠다면, 조금이라도 시간 투자를 해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은 공부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으며 외출 필요는 없다. 공연장에 와서 팸플릿을 보는 정도도 괜찮다. 모든 관객이 공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장내로 입장하는 것은 아니니, 지휘자나 출연진이 시작 전에 약간의 설명을 해주면 무대와 객석이 더욱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Q 공연관람은 주로 누구와 하는지?

다도(茶道)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에게 공연관람을 많이 권하고 있다. 실제로도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좋은 공연이 있으면 티켓을 직접 구입해서 나눠주며 함께 가기를 청하기도 한다. 그렇게 관람을 하고 나면 반응도 제각각이라 재미있다. 나로 인해 공연관람에 흥미가 생기는 이도 있고, 시종일관 졸음과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동행이 바뀐다.

Q 선호하는 공연 장르가 있는지?

교향악단 연주는 빼놓지 않고 감상한다. ‘첼리스트 조영창’을 아는가? 그가 나의 친구다. 그를 통해 유명 음악인 몇몇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클래식 음악은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김해 등 인근 지역과 때로는 일본까지 원정 관람을 가기도 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05년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 ‘레온 플라이셔’가 울산시향과 협연한 적이 있다. 아직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감동이 잔잔한 물결처럼 온 몸으로 퍼진다. 지역에서 그러한 거장의 연주를 듣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욱 잊지 못할 순간으로 새겨져 있다.

Q 직장인인데, 우리나라 희식문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회식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회식은 다소 이상적인 생각인 듯 하다. 물론,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히면 얼마나 좋겠나. 누구보다 그걸 원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기도 하다. 동료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감상을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여운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함께 갈 공연 또한 기다려질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밝혔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현장에서 겪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본인 이 마이크를 잡고 직접 노래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웃음)

Q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발전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야만 예술회관도 성장·발전할 수가 있다. 즉, 관객과 회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예술회관을 수년째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반인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곡만을 연주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호반광장 클래식 산책’이나 ‘찾아가는 예술단’ 등은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연은 즐기기를 ‘작정’ 하고 덤비지 않으면,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항목이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욕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오디오로 듣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공연장 안에서 온 몸과 마음을 내맡기듯 곡에 취할 수 있는 것에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차를 끌고 한적한 산이나 바다를 찾아 간다고 했다. 오디오 볼륨을 높이고 ‘빗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교향곡을 듣고 싶노라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의 환한 미소는 스스로 만든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연스레 얻은 것이리라.

그가 풀어놓는 해박한 지식 앞에 필자가 작아짐을 느끼면서, 질문을 던지기 전이나 오히려 몇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머릿속으로 점검(?)하는 소심함을 눈치 채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러웠다. 이제 앞면을 뒀으니 종종 공연장에서 인사를 나누게 될 터인데, 공연에 대한 공부, 나부터 실천해야겠다는 반성과 함께 답소를 마무리했다.

/ 글. 김내영(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드 기자)



NOTICE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어린이 놀이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연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을 앞두고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며 한숨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동화책, DVD 등이 구비된 어린이 놀이방이 있으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봐 주고 함께 놀아 줄 선생님도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볼까요?



◎울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Museum Saturday Concert』

주제 : 봄맞이 대축제 일시 : 2011. 4. 21(토) 오후 2시

장소 : 울산박물관 중정 문의 : 052) 226-8278

* 본 공연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설무대로 매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톡!
톡!
톡!

T a l k

“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안내된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으로 공연 티켓도 받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일석이조!

지난 3월 3일(토)에 있었던 『선과 서경덕의 토크 콘서트』 공연 감상평을 작성하여 『막돼먹은 영애씨』 티켓을 획득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

● 이명희 | 남구 옥동

지면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선과 서경덕 교수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설렘으로 주말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경쾌했다. 열심히 박수치고 합성을 지르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개운했다. '아~~ 아들도 함께 왔더라면 좋았을 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두 분께 "존경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나누고 사랑하고 베푸는 두 분의 삶을 털끝만큼이라도 닮아보고 싶다고 아니 닮아야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게 되었다.

● 이필숙 | 부산 남구 용호동

부산시민인데 우연히 가입하게 된 울산문화회관 가족회원. 선과 서경덕의 토크쇼를 한다가에 일단 표부터 예매를 해놓고 누구랑 볼까 고민을 했다. 가족과 함께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참에 친구도 볼까 해서 연락하니 모두 오케이! 좋은 공연 보여 주셔서 넘 감사하고 토크쇼를 보고 와서 느낀 것을 행동으로 지금 바로 실천하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이소진 | 남구 선암동

토요일 9살 아들과 토크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아들에게 뭔가를 보여줄려고 갔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머리로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모이면 기부하러 가자고 하네요.. 이정도면 저 공연 잘 보고 왔죠??

● 임미영 | 중구 남외동

직장 동료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의 팬인 동료는 전 날 부산 집에 갔다가 이 공연을 보러 다시 울산으로 왔는데 공연을 마치고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울산이라는 지방에서도 이런 토크콘서트가 먹히는구나!" 첫 시도라 주위의 우려가 많았을 텐데도 시민을 위해 이런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고 준비한 문화예술회관 측 공연기획팀의 앞선 안목과 수고에 감사 를 드리고 싶네요. 회관회원 초대로 오게 되었는데, 회원으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자부심도 생겼고 기억에 남을 공연이 되었습니다.

● 허순주 | 울주군 범서읍

토크 콘서트에 회원들을 초대해 주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에서 무언가 몽클한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어땠냐고 딸에게 물어 보았더니 '좋았어' 라고 대답하더군요. 말로는 그저 좋았다고 표현한 딸의 마음속에 꿈이, 행복이 그리고 희망이 싹트길 기대해 봅니다.

● 홍보경 | 남구 야음동

개강 전, 엄마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딸입니다. 그래서 공연 정보를 찾아보던 중 선과 서경덕교수님의 토크콘서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토크콘서트를 처음 접해보는 지라 기대 반 걱정 반을 안고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시작을 알리는 PPT보고 땀터졌어요. 재치만점! 카피머신과 함께 '로데오'를 외치며 신나는 분위기에서 콘서트(?)를 즐기고~ 저도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꽃단장

봄은 차가운 대리석을 녹이고

형형색색의 무지개를 선물하였다.

회관 구석구석 봄 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풍경이다.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창단연주회

일시 : 4. 3(화)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원
 주최 :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문의처 : 259-1208

■ 공연개요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창단 연주회

- 프로그램
- The invitation to the dance OP.65(C,H Weber)
 - The plant - jupiter - Mars(G.Hoist)
 - Galop Marche(A.Larignac)
 - The Nustracker - March - Trepak - Waltz of flowers(P.Tchaikovsky)
 - Carmen Fantasie(G.Bizet - M.Wilberg)

제14회 김외섭 창작무용단 공연

일시 : 4. 4(수) 19:3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최 : 김외섭 창작무용단
 문의처 : 227-8736

■ 공연개요
 박제상의 부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름달빛 아래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과 모습을 한국적 춤사위로 표현

- 프로그램
- 1장 : 목숨을 바쳐 왕자를 구한 신라의 총신 박제상
 - 2장 : 떠난 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노라
 - 3장 : 새가 되어 날아가리
 - 에필로그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우리 친구들이 위험해요”

일시 : 4. 4(수) 11:00 13: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단체 10,000원

주최 : 빼에로극단
 문의처 : 032-465-3858

■ 공연개요
 부모님의 사랑과 성교육, 다문화의 이해와 유괴에 대한 재현을 노래와 율동으로 쉽게 표현하여 어린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익힘으로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자기 몸의 소중함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인식 시키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연

제9회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시 : 4. 7(토) 19:3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의처 : 010-5122-7978

■ 공연개요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베르디 서곡(운명의 힘), 라틴곡 모음,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영화 '시카고' ost, 무소르그스키 '민중산의 하룻밤' 등 다수

가족뮤지컬 “통과 제리”

일시 : 4. 7(토) 12:00 14:00 16:00
 4. 8(일) 13:00 15: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원 (할인 15,000원)
 주최 : 민들레
 문의처 : 051-626-1722

■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만화 캐릭터를 뮤지컬로 제작

■ 프로그램
 고양이 톰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파티를 연다. 낮잠을 자던 생쥐 제리에겐 여간 시끄러운 소동이 아닐 수

없다. 제리는 기지를 발휘해 톰을 끌려주고 친구들을 내 쫓는데 성공하지만, 톰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있을까? 제리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톰은 폭탄과 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오히려 제리에게 당하고 마는데... 과연 톰은 제리를 내쫓을 수 있을까?

제6회 김성은 바이올린 독주회

일시 : 4. 10(화)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김성은
 문의처 : 245-0587

■ 공연개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독주회

- 프로그램
- Violin sonata No.4 in A Major op23
 - Violin sonata No.3 C mirer op45
 - Rhapsody for piano & Violin No.1

2012 행복콘서트

일시 : 4. 13(금) 20: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최 : 울산현대오페라단
 문의처 : 294-3818

■ 공연개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2012 행복콘서트'를 마련

- 프로그램
- una furtiva, Tonight, I don't need anything but you
 - 도레미송, 외로운 양치기, Over the rainbow, All I ask of you
 - Think of me, Time to say goodbye

●
2012년 울산광역시
청소년 문화존 “아띠존”

일시 : 4. 14(토) 16:00
장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의처 : 227-0606

■ 공연개요
2012년 울산광역시 청소년문화존 개막축제 “드림하이”

●
제15회
울산연극제 “돼지와 오토바이”

일시 : 4. 15(일) 16:00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문의처 : 266-7081

■ 공연개요
제30회 전국연극제 예선전

●
제15회 울산연극제 “역새풀”

일시 : 4. 17(화) 16:00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문의처 : 266-7081

■ 공연개요
제30회 전국연극제 예선전

●
제15회
울산연극제 “사랑이 온다”

일시 : 4. 19(목) 16:00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문의처 : 266-7081

■ 공연개요
제30회 전국연극제 예선전

●
한·러 자매결연 학생문화축제

일시 : 4. 20(금) 15:00 19:0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예술고등학교
문의처 : 221-6264

■ 공연개요
울산예고와 러시아의 자매결연 행사로 무용 합동공연 및 음악 합동연주회이며, 전공자들의 연주로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

■ 프로그램
• 무용 : 백조의 호수
• Mozart, 협주곡 No. 12
• Beethoven, 교향곡 No. 5 1st
•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 오페라 대장간의 합창 외 1곡

●
2012 울산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시 : 4. 21(토) 19:3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주최 : 울산YMCA합창단
문의처 : 017-506-7268

■ 공연개요
틀에 끼여진 기존의 고전적인 합창연주에서 벗어나 시대와 격조에 맞는 편곡들로 짜여진 수준 높은 곡들을 선보임으로써 기존 고전 합창이 가져다주는 지루함과 구태의연한 모습을 피하여 세련된 화음을 선사

■ 프로그램
• Pacem, Amor de mi aim, Joshua
• 꽃타령, 귀천, 라라라, 사랑이라는 이유로, Kaki Lambe, Sway, The Rose, 이문세 메들리, One day more 등

●
제15회 울산연극제 “신화마을”

일시 : 4. 21(토) 16:00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문의처 : 266-7081

■ 공연개요
제30회 전국연극제 예선전

●
제15회 울산연극제
“엑스트라하우스”

일시 : 4. 23(월) 16:00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문의처 : 266-7081

■ 공연개요
제30회 전국연극제 예선전

●
울산CBS창립 8주년 기념
“봄의 축제”

일시 : 4. 24(화) 19:30
장소 : 대공연장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CBS
문의처 : 256-3333

■ 공연개요
울산CBS 창립 8주년 기념음악회

●
엄현숙 해금 독주회

일시 : 4. 27(금)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엄현숙
문의처 : 010-2511-4345

■ 공연개요
국악기 “해금” 으로 연주되는 좋은 음악을 통하여 국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 마련

■ 프로그램
해금 산조, 신곡 I, 신곡 II

●
2012 서덕출 창작동요제

일시 : 4. 28(토) 16:0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문화방송(주)
문의처 : 290-1139

■ 공연개요
울산출신 동요작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기 위한 창작 동요제이며, 서울과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15개 동요팀들이 펼치는 동요제

■ 프로그램
축하공연(2개팀), 동요제(15개팀), 축하공연(2개팀)

●
가족뮤지컬 “비보이와 함께하는 신데렐라의 어린이날 Story”

일시 : 4. 28(토) 12:00 14:00 16:00
4. 29(일) 13:00 15: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주최 : 극단 중원극회
문의처 : 02-3474-4620

■ 공연개요
어린이날을 맞아 신데렐라 공연에 비보이들의 춤을 접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더한 공연

■ 프로그램
• 1막1장 : 거리
• 1막2장 : 거실
• 2막1장 : 궁전
• 2막2장 : 거실

EXHIBITION

●
우보 배성근 서예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배성근

■ 전시내용
한글, 한문, 문인화 등 새로운 서예의 미적 탐구 서예작품 및 붓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개인의 창작 서예작품 40점 전시

●
제2회 3인의 꽃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꽃그림회

■ 전시내용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에 꽃이 피는 자연의 이치를 3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꽃 그림 25점 전시

●
제12회 강문철 작품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강문철

■ 전시내용
녹색의 대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목과 거대한 뿌리의 힘찬 생명력을 표출하는 나무의 생명력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서양화 작품 40점 전시

●
제1회 굿 포토클럽 회원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굿포토클럽

■ 전시내용
굿 포토클럽은 울산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사진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길' 이라는 테마로 진취적이고 이색적인 회원들의 창작 사진작품 60점 전시

●
제12회 울산대 동양화와 졸업작품전

기간 : 4. 5(목)~4. 10(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대학교 동양학과

■ 전시내용
현대미술의 새로운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으로 개인의 시선으로 감성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삶을 생각해 보게 하는 졸업생들의 한국화 작품 30점 전시

●
제4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기간 : 4. 5(목)~4. 10(화), 6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울산광역시미술대전 6개 부문의 초대작가, 추천작가, 운영위원들의 작품 전시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등 미술작품 146점 전시

제11회 뉴비전사진동호회 정기전

기간 : 4. 5(목)~4. 10(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뉴비전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뉴비전사진동호회 열한번째 정기회원전으로, 회원들이 1년 동안 작품 활동을 펼쳐온 풍경, 인물사진 등 개인별 주제의 사진작품 60점 전시

제9회 울산 전국서에 문인화대전

기간 : 4. 11(수)~4. 16(화), 5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서화예술진흥회

■ 전시내용
 울산서화예술진흥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전국 서예 문인화를 공모, 분야별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한글, 한문, 문인화 부문의 대상, 최우수, 우수, 특선, 입선 등 부문별 입상작품 총 340점 전시

제19회 한국수석 울산지역회 회원전

기간 : 4. 17(화)~4. 19(목), 3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한국수석울산지역회

■ 전시내용
 전국 각지에서 출토한 산수경석, 물형석, 문양석, 도형석 등 60점 전시

제1회 최경화 한국화 개인전

기간 : 4. 17(화)~4. 21(토),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최경화

■ 전시내용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따라 자연의 생활 속에서 인생의 철학이 남겨져 있는 꽃을 소재로 담은 한국화작품 30점 전시

제32회 청우수석회 회원전

기간 : 4. 20(금)~4. 22(일), 3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청우수석회

■ 전시내용
 14명의 회원들이 1년 동안 전국 각지를 찾아 탐석한 수석을 전시하여 회원 친목도모와 수석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수반석, 산수경석, 문양석 등 40점 전시

제14회 울산해석회 회원전

기간 : 4. 20(금)~4. 22(일), 3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울산해석회

■ 전시내용
 울산해석회의 제14회 정기전으로 향토해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석문화 발전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몽돌, 문양석 등 50점 전시

제1회 김경숙 개인전

기간 : 4. 23(월)~4. 27(금), 5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김경숙

■ 전시내용
 병풍, 가리개 등을 이용한 산수화, 문인화 작품 35점 전시

제6회 울산사진학회 정기전

기간 : 4. 23(월)~4. 27(금),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사진학회

■ 전시내용
 울산사진학회의 여섯 번째 정기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일상속의 모습들 중에서 항상 '그림자'를 통해서 울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작품 30점 전시

제6회 오색조각보 회원전

기간 : 4. 24(화)~4. 27(금), 4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오색조각회

■ 전시내용
 전통 오방색을 이용한 조각조각의 우리의 옛 보자기들을 수놓은 공예작품 50점 전시

제16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접수·심사

기간 : 4. 28(토)~4. 29(일), 2일간
 장소 : 제2,3,4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 16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작품접수 및 심사 개최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 완성!

문예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풍성한 혜택이 당신을 찾아가합니다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